

외국인 감독 모시기 정말 힘드네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후보자 고사로 속앓이 선정작업 지연...외국인 감독제 우려 목소리도

광주비엔날레가 외국인 감독 선임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외국인 감독 후보 2명 가운데 한 명이 중도사퇴 하는 바람에 해외 총감독 선임 일정이 예상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게 된 때문이다.

게다가 비엔날레는 제3의 외국인 감독 후보에게 또 다시 총감독 후보 수락 의사를 타진한 뒤 그에 맞춰 감독 선출일정을 잡아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12일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로랑 헤기 프랑스 생테티엔 미술관장과 함께 2008광주비엔날레 외국인 예술 총감독 후보로 선정된 데이비드 엘리엇 터키 이스탄불 현대미술관장이 후보를 고사했다.

그는 올초 이스탄불 현대미술관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맡는데 부담을 느껴 총감독 후보 선출 프리젠테이션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비엔날레는 지난달 15일 예술총감독후보를 발표한 이후 감독 선출 프리젠테이션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비드 엘리엇

의 '임'을 쳐다보며 1개월여를 허송했다. 또 비엔날레는 차기 대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3월 안으로 감독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됐다.

이처럼 외국인 감독 선임절차가 순조롭지 않아 비엔날레 재단은 일단 내·외국인 감독을 분리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윤진섭(호남대 예체능대), 장석원(전남대 예술대) 교수 가운데 한 명을 국내감독으로 선출한 뒤 외국인 감독 선출 일정을 확정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총감독 후보로 추천된 인사가 중도 사퇴함으로써 감독 선출의 모양새가 어색하게 됐을 뿐 아니라 명성에도 흠집을 남기게 됐다.

여기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로 추천된 전체 4명의 인사 가운데 사퇴한 데이비드 엘리엇을 포함 3명이 총감독 후보로 추천되는 인력풀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12년 만에 내·외국인 공동감독제를 도입했으나 외국인 총감독 후보의 중도사퇴로 외국인 감독선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비엔날레 재단 전경.

감독을 선출할 비엔날레 이사회도 고민에 빠졌다. 선순위 후보 2명 중 한 명이 사퇴함에 따라 '후순위' 감독 후보와 선순위 후보를 저울질하는 곤란한 지경에 놓였다.

선순위로 추천된 로랑 헤기 관장을 뽑을 경우 '경쟁'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시간만 허비했다는 뒷말이 우려되고, 후순위 인물을 감독으로 정할 경우 선출 절차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외국인

감독 모시기'가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아 외국인 감독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술계의 한 인사는 "비엔날레 재단이 외국인 감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외국인 감독 후보를 정하는 데도 이처럼 곤란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 감독을 선임한 뒤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외국인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미술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정순이씨

“광주작가 해외진출 돕겠다”

“광주 지역 작가들이 해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가교역을 할 생각입니다.”

서양화가 정순이씨(61)가 최근 한국미술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전남 여류화가협회 회장을 지낸 정씨는 광주 지역 작가로서 처음 이 자리에 올랐다.

국제위원회는 각종 해외 교류전과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작가들을 선발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미술협회 산하 조직이다.

“재능은 갖고 있지만 그동안 음지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광주 지역 젊은 작가들을 발굴, 해외무대 진출을 돕겠습니다. 서울 작가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큼 지방 작가들을 배려할 생각입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뉴욕아트 페어에 참가한 것은 물론 스위스, 파리 등지에서 열린 국제 교류전과 아트페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작가로 통한다.

“아트페어에 참가할 때마다 광주 전남 지역 작가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뉴욕 아트페어에서 광주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했던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파리 등지에서 열린 국제 교류전과 아트페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작가로 통한다.

“아트페어에 참가할 때마다 광주 전남 지역 작가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뉴욕 아트페어에서 광주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했던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3년 동안 국제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정씨는 해외진출 작가들이 서양화 부문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인화, 서예를 비롯 다양한 부문 작가들에게도 해외진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공조를 통해 유엔, 미국영사관 등지에서 해외 기획전을 여는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미술대전, 현대미술작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쇠와 옹녀의 찰떡궁합

마당놀이 '변강쇠' 14일 광주주동체육관

‘강쇠와 옹녀의 찰떡궁합.’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마당놀이 '변강쇠'(연출 손진책)가 14일 오후 2시·6시 두차례 광주주동체육관에서 공연된다.

지난 1981년 ‘허생전’을 시작으로 20여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극단 ‘미추’가 무대에 올리는 ‘변강쇠’는

30여편의 마당극 가운데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은 작품으로 꼽혔던 화제작.

변강쇠와 기구한 운명의 절세 미녀 옹녀를 주인공으로 한 ‘변강쇠’는 ‘성(性)’을 소재로 사회적 이슈와 사건 등을 패러디한 현실 풍자를 곁들인 작품. 마당놀이 스타 김성녀와 윤문식, 김종업의 맛깔스런 입담과 연기

가 눈길을 끌며 30여명의 미추 단원들의 흥겨운 춤사위와 노래가 객석과 하나됨을 연출한다.

제작진 역시 박범준(작곡), 국수호(안무), 중앙극악관현악단(연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상의 무대를 보여준다. 티켓 가격 4만원, 3만5천원. 문의 062-382-778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소박한 클래식 음악 잔치

금남공원에서 매월 한차례 씩 음악회...14일 한국가곡 연주

‘둘째주 화요일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세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한국은행 자리에 조성된 금남공원에서 매월 한차례씩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문화지킴이 광장(단장 정찬경)이 마련한 ‘광장음악회’는 문화를 사랑하고 가꾸는 후원인들과 클래식 음악인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소박한 음악회다.

매월 주제를 정해 광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대체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14일 오후 5시 열리는 2007년 첫 공연에서는 ‘한국의 서정’을 주제로 ‘아무도 모르라고’ ‘명태’ ‘봄이 오면’ 나

물 깨는 처녀’ ‘강원도 아리랑’ 등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출연자는 황성철·김은선·정찬경·신은정·김백호·유기택씨 등이다.

5월 공연은 12일 오후 5시 ‘오월의 노래’를 주제로 삼아 5월을 예술로 승화시킨 가곡과 민중의 노래로 꾸밀 예정이다. 공연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오페라 갈라 공연(6월9일) ▲7월의 연인(7월14일) ▲정열의 여름 밤(8월11일) ▲오페라 갈라(9월8일) ▲총장로의 추억(10월13일) ▲세계의 민속음악(11월10일). 문의 062-655-352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김남희 초청 음악회 노인 상담사 세미나

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23~24일 광주 예은교회

테너 김남희 <서인> 초청음악회가 17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남이 오시는지’ ‘내 맘의 강물’ 등 한국가곡과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 등을 들려준다. 연세대 음대 출신인 김씨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성악과에서 수학했으며 린츠오페라하우스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광주여성행복상담센터(지후 번옥)이 협연하며 소프라노 이수정씨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019-9229-2181.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사단법인 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대표이사 김세종 목사)는 오는 23~24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예은교회에서 ‘노인 상담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한국민간자격협회의 노인상담사와 노인대학복지지도사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 세미나는 노인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노인대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세종 목사, 한국상담학회 상담연구원 김재만 원장, 성신여자대학교 상담학과 사제회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참가비는 무료(교재비 제외). 문의 02-2066-2366.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발랄한 시선 ‘죽이는 4월’展

광주 롯데회관 내달 2일까지

광주 롯데회관이 4월을 바라보는 젊은 작가들의 발랄한 시선을 담은 ‘죽이는 4월’전을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갖는다.

참여작가는 RGA(Real young Gwangju Artists color)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와, 권진희, 조은애, 이인성씨. 작가들은 4월의 특징기념일을

주제로 각자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권진희씨는 만우절을 주제로 한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 인위적인 현실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위안을 얻으려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인성씨는 ‘나무 삼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식목일을 재해석하고, 조은



이인성 작 '4월5일 식목일'

애씨는 블랙데이(자장면 먹는 날), 김은와씨는 ‘과학의 날’을 조명한다. 문의 062-221-180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062)223-1140, 5210, 5211, 602-2532

부광공인중개사 (062)654-4520, 4016-629-1718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016-757-8800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전원주택지 분양 대행**

전원주택지 분양 대행... **전원주택 및 가든용 (1/2 자언농지와 그린벨트)**

식당, 일식, 찻집, 레스토키, 고기전문점 적합... **토지매도**

매매상담형·사업목적부지·건물·자산투자부지 등... **모 집**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하남 2지구 택지**

아파트, **주택+대지**, **다기구**, **그린시원**, **그린시원**, **그린시원**